

Meritz 통신서비스 Weekly



통신/미디어
Analyst 정지수
02. 6454-4863
jisoo.jeong@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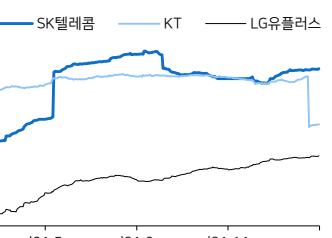
2022.2.7

1 주가 현황

	수익률(%)				PER(x)		PBR(x)		배당수익률(%)		국내 통신사 외국인 지분율 추이 (%)
	1W	1M	3M	6M	2021E	2022E	2021E	2022E	2021E	2022E	
KOSPI	1.1	-6.9	-7.4	-15.9	10.7	10.7	1.1	1.1	1.8	1.8	
통신업종	2.3	1.5	-0.9	-2.9	7.0	7.0	0.6	0.6	5.6	5.6	
SK텔레콤	0.2	-3.3	5.6	6.7	5.5	6.4	0.6	0.6	5.7	5.9	
KT	4.1	3.2	4.4	-4.8	7.8	7.6	0.6	0.5	5.2	5.8	
LG유플러스	4.6	0.4	-3.5	-7.5	8.0	7.6	0.8	0.7	4.2	4.8	
AT&T	-4.5	-6.1	-2.9	-13.5	7.2	7.9	1.0	1.0	8.7	8.0	
Verizon	0.8	-0.3	2.8	-3.7	9.9	9.8	2.8	2.4	4.8	4.8	
T-Mobile	11.3	6.0	-1.4	-15.0	53.5	46.8	2.2	2.1	0.0	0.0	
NTT	3.8	2.9	3.9	19.8	13.5	10.6	1.5	1.4	3.1	3.3	
KDDI	5.7	6.9	8.7	12.1	13.2	12.7	1.8	1.7	3.2	3.4	
Softbank	8.7	-3.8	-16.0	-23.1	2.3	9.0	1.2	0.8	0.8	0.8	
China Mobile	3.9	9.6	11.6	9.9	8.0	7.6	0.7	0.7	6.8	7.5	
China Unicom	3.5	4.8	5.5	-2.6	6.9	6.3	0.3	0.3	7.4	8.9	
China Telecom	3.1	9.5	14.0	2.7	8.3	8.1	0.5	0.5	7.1	8.1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 통신사 외국인 지분율 추이 (%)



SKT 45.0% (Flat WoW, +0.2%p MoM)

KT 39.0% (+0.1%p WoW, -4.6%p MoM)

LGU+ 35.6% (+0.1%p WoW, +0.3%p MoM)

KT, LGU+ 외국인 순매수 기록

2 업종 코멘트

전자 통합

2월 첫째주 통신업종 주가지수는 KOSPI 대비 +1.2%p 수익률 기록하며 Outperform 배당 상승, ARPU 회복, 5G 보급을 상승 등 통신업 전체의 매력 부각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 17일 통신3사 CEO와 주파수 경매 관련 회동자리를 가질 계획
국내 기관은 KT, SKT, LGU+ 순매수. 외국인은 SKT, LGU+ 순매수, KT 순매도

금주 전망

금주는 9일(수) SK텔레콤과 KT가 4Q21 실적을 발표할 예정
KT는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 SK텔레콤은 시장 컨센서스를 소폭 하회하는 실적 예상
KT는 배당매력 부각 및 외국인 지분율 상승으로 인해 긍정적인 주가 흐름 전망
또한 올해 케이뱅크 등 자회사 상장으로 통신 본업 가치가 부각될 전망. 통신주 내 KT 선호

★ 통신업종 캘린더

SUN	MON	TUE	WED	THU	FRI	SAT
30	31	1	2	3 Nokia 4Q21 실적발표	4	5
6	7	8	9 SK텔레콤, KT 4Q21 실적발표	10	11	5

3 주간 뉴스

▶ 임혜숙 장관, 17일 이통 3사 CEO 만난다

(ZD Net Korea)

-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 17일 SKT, KT, LGU+ 등 이동통신 3사 CEO와 회동 자리를 가질 전망
- 최근 5G 주파수 20MHz 폭 추가 할당과 관련한 논의를 위한 자리로 CEO 회동 일정 조율을 마친 상황
- 주파수 경매 절차상 2월 개최는 사실상 물 건너간 상황, 당초에는 20MHz 폭 경매 일정을 2월로 예고
⇒ SKT와 KT는 효율성 측면에서 LGU+만 쓸 수 있는 주파수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불공정 주장
⇒ 3.4GHz 대역 주파수를 두고 이견이 지속되면서 주무부처 장관이 직접 논란을 매듭 짓겠다는 의도

▶ 5G 국가망, 4개 기관 선도 구축... 이통 3사 격돌 전망

(전자신문)

- 행정안전부, 이르면 다음 달에 과기정통부, 외교부 등 5G 국가망 선도구축사업 입찰을 진행할 계획
- 정부기관 업무환경을 유선 인프라 기반에서 5G 기반 무선 인프라로 교체하는 것이 핵심
-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는 모두 5G 이동통신 국가망 선도구축사업 입찰 참여를 준비 중
⇒ 선도사업 이후 2024년에 정부기관과 지자체 대상 50개 기관을 대상으로 본사업이 진행될 예정
- 투입 예산 약 3,322억원으로 통신3사 모두 선도구축사업 수주해 본사업에 적극 대비한다는 의도

▶ 5G 트래픽 50만TB 돌파... 알뜰폰 5G 가입자 5만 넘었다

(아이뉴스 24)

- 지난해 12월 5G 트래픽은 53만5,134TB(+7.5% MoM), 5G 가입자 수는 2,091만 5,176명 기록
- 5G 가입자 중 알뜰폰 5G 가입자는 54,815명으로 처음으로 5만명을 넘어선 가입자 기록
- LTE 가입자는 지속 감소세, 지난해 9월 5,000만명 아래로 감소, 12월에는 4,828만 8,764명 기록
⇒ 5G 트래픽은 55만 가입자로 최고치를 찍었던 LTE 때에도 달성하지 못했던 수치(47만 3,543TB)
⇒ LTE 가입자 지속 감소세로 LTE 트래픽은 1년만에 처음으로 30만 TB이하 기록(29만 6,094TB)

▶ 삼성전자, 5G 사설망 사업 확대... 미국 암닥스와 맞손

(전자신문)

- 삼성전자, 미국 5G 사설망 사업 확대를 위해 美 통신 솔루션 서비스 전문기업 암닥스와 협력
- 암닥스는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 통합(SI) 서비스를 제공
- CBRS 제품과 사설망, FWA 지원 5G 통신장비 제품군을 암닥스를 통해 미국 현지 고객에게 공급
⇒ CBRS는 3.5GHz 대역 150MHz 폭에 혁신 주파수 공유 기술 접목, 상업용으로 개방한 활용 방식
⇒ 기업이 자체적으로 5G 사설망을 구축해 좀 더 안정적인 서비스 품질과 높은 보안성 확보 가능

▶ SKT, 5G '3.7~3.72GHz'에 KT 필요한 20MHz까지 함께 추가할당 요청

(전자신문)

- SKT, 5G 이동통신 주파수 인접대역인 3.7~3.72GHz에 KT에 필요한 20MHz 폭 함께 추가할당 제안
- 공정을 내세워 KT 끼의 추가 주파수까지 요구한 것으로 요청한 구체적 대역이 드러난 것은 처음
- 다만 KT의 생각은 SKT와 달라 지금 당장은 20MHz 추가 주파수가 필요 없다는 입장
⇒ SKT는 3.7~3.72GHz 대역 확보할 경우 추가 장비 없이 소프트웨어 개발, 업그레이드로 활용 가능
⇒ 반면 KT는 3.7GHz 이상 대역을 가져간다 해도 해당 거리까지 CA를 지원할 수 있는 장비가 필요

▶ HBO맥스, 서비스 국가 확대 가속도... 유럽 추가 진출

(ZD Net Korea)

- 워너미디어, HBO맥스 유럽 15개 국가 추가 진출 발표. 진출 완료 시 서비스 국가는 총 61개국
- 이미 유럽 일부 국가에서 서비스를 시행 중, 연말에 그리스, 터키 포함 6개 유럽 국가 추가 진출
- 내달 진출하는 유럽 국가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불가리아 등 동유럽 국가 중심
⇒ HBO맥스의 유럽 진출이 더디게 진행된 이유는 스카이TV와의 TV프로그램 라이선스 계약 때문
⇒ 스카이TV와의 계약 완료는 2025년, 이로 인해 일부 메이저 유럽 시장에 진출하지 못하는 상황

4 주요 지표

(집약달력)	종가 (통화)	시가 총액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EBITDA		EV/EBITDA (배)		ROE (%)		
			2021E	2022E	2021E	2022E	2021E	2022E	2021E	2022E	2021E	2022E	2021E	2022E	
한국	SK텔레콤	56,400	10.3	16.0	15.6	1.2	1.4	1.9	1.5	4.6	4.5	4.2	4.3	9.5	7.8
	KT	31,800	6.9	20.5	21.2	1.3	1.4	0.9	0.9	4.3	4.5	3.0	2.9	7.4	7.3
	LG유플러스	13,650	5.0	11.6	12.0	0.9	0.9	0.6	0.7	2.9	3.0	3.6	3.5	9.8	9.7
미국	AT&T	24.1	172.0	168.7	153.0	32.6	29.0	24.0	20.4	51.9	48.7	6.7	7.1	13.5	11.9
	Verizon	53.3	223.8	133.4	135.7	32.3	32.9	22.5	22.7	48.4	49.7	7.7	7.5	30.1	25.8
	T-Mobile	120.9	151.1	80.1	82.1	6.9	7.9	2.8	3.3	26.6	27.1	8.4	8.3	4.3	4.9
일본	NTT	3,362	105.7	108.2	105.9	15.1	15.3	8.4	9.9	29.0	28.6	6.4	6.1	10.8	14.7
	KDDI	3,751	75.0	48.5	47.1	9.6	9.2	6.0	5.8	16.3	15.9	5.8	5.6	14.5	13.8
	Softbank	5,214	77.9	50.9	53.1	49.9	6.5	37.1	10.5	50.0	16.5	4.9	14.2	39.3	9.4
중국	China Mobile	54.4	150.5	133.4	141.4	18.8	20.2	18.1	19.5	48.8	51.0	1.7	1.6	9.7	9.9
	China Unicom	4.2	16.5	51.3	54.2	2.0	2.3	2.3	2.6	15.3	15.9	0.9	0.8	4.5	5.0
	China Telecom	3.0	56.1	68.5	73.4	5.1	5.5	4.0	4.3	20.0	21.1	2.5	2.4	6.5	6.5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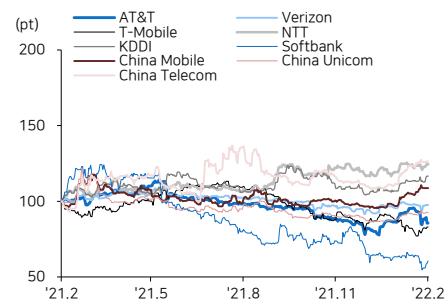
5 주요 차트

최근 1년 국내 통신주 상대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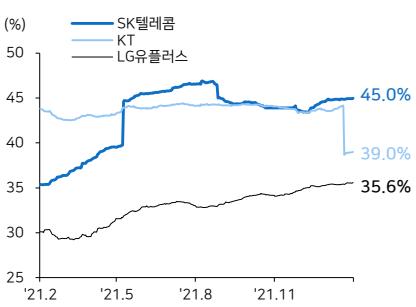
자료: WiseFn

최근 1년 해외 통신주 상대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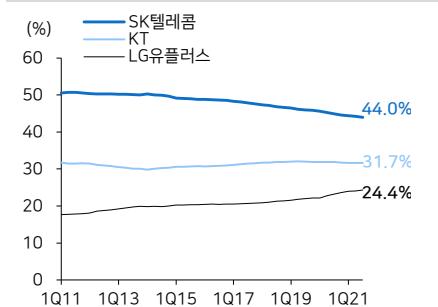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통신 3사 외국인 지분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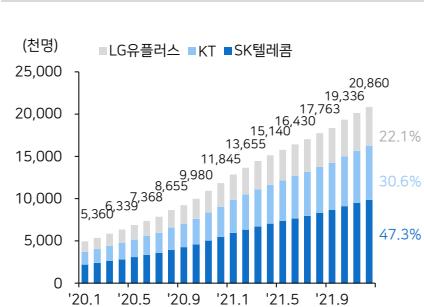
자료: WiseFn

통신 3사 이동전화 점유율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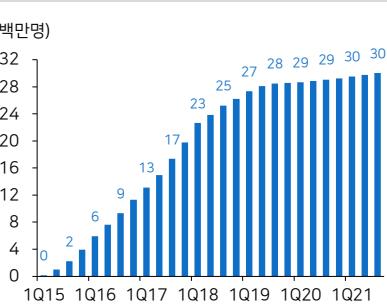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3사 5G 가입자 및 점유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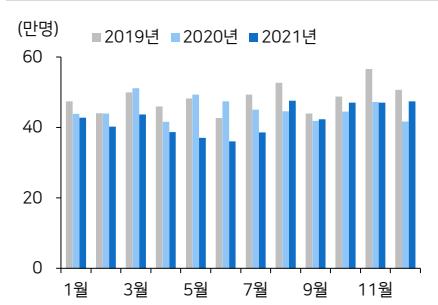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선택약정회원 가입자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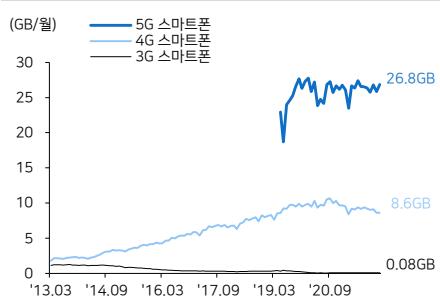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번호이동시장(MNP)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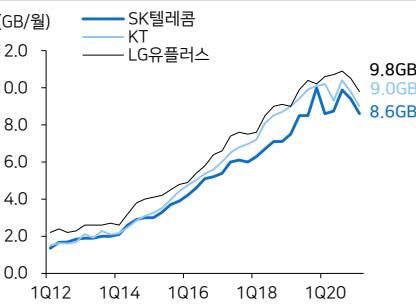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동전화 단말기별 트래픽 현황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 3사 LTE 가입자 데이터 사용량



자료: 각사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율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접 없이 신의 성실히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시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